

04 고등학교 1학년

고1 가을에 정하는 것

과목 선택의 실제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무엇을 기준으로	3
03 아이와 이야기하는 법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9월 가정통신문에서 10월 말 확인서까지 — 실제 일정
- ◆ 고를 때 볼 네 가지 — 진로·선수과목·감당·개설 여부
- ◆ 진로를 못 정했을 때 **아이에게 물으실 말**과 「열어 두는 쪽」의 뜻
- ◆ 어려운 과목을 피하는 것이 정말 유리한가

01 · 먼저 사실부터

가을에 3년이 정해집니다

고1 가을에 2·3학년 과목을 정합니다. 선택 과목은 10월 말 최종 확인서로 확정, 변경은 그 학년 종업식 전까지 이 결정이 3년의 시간표를 정하고, 학생부에 남고, 대학에서 읽힙니다.

시기	무슨 일이
여름~9월	학교가 개설 과목을 안내합니다
9~10월	수요조사 — 여기서 개설이 갈립니다
10월 말	최종 확인서 — 서명합니다
그 뒤	그 학년 종업식 전까지만 변경

둘째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수요조사에서 신청자가 적으면 학교가 그 과목을 안 엽니다. 듣고 싶어도 못 듣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통신문이 오는 9월이 실제 시작입니다. 10월에 알아보시면 이미 정해진 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이 어디까지 가나

과목은 시간표만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부에 「무엇을 들었는지」로 남고, 그 과목의 세특이 과목마다 500자씩 씁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선택과목이 없어지면서 대학이 학생부의 이수 과목을 볼 여지가 커졌습니다. 다만 대학이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 가능성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2026년 8월 기준). 일정과 절차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십시오.

02 · 무엇을 기준으로

네 가지를 봅니다

	기준	어떻게 보니까
1	진로	가려는 계열에 필요한 과목인가
2	선수 과목	앞의 과목을 들었는가
3	감당	주당 시수와 평가 방식은
4	개설	우리 학교에 실제로 열리는가

1번을 「수능 유불리」로 바꿔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제도에서는 수능에 선택과목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 F3에서 다른 자리입니다.

그래서 남는 기준은 「내 진로에 필요한가」입니다. 진로를 못 정했으면 「열어 두는 쪽」으로 고르십시오.

3번을 특히 보십시오

이름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같은 이름의 과목이라도 주당 시수가 다르고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수강자가 적은 과목은 등급이 튼니다.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갑니다 — 이걸 알고 고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강자가 많은 과목만 고르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로에 필요하면 등급이 튀어도 듣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모르고 고르지는 마시라는 뜻입니다.

출처: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개설과 평가 방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03 · 아이와 이야기하는 법

진로를 못 정했다면

고1 가을에 진로가 정해진 아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 상태에서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이렇게 물으십시오
「무슨 과 같 거야?」	「어느 수업이 덜 힘들었어?」
「뭐 하고 싶어?」	「뭐 할 때 시간이 빨리 갔어?」
「이게 유리해」	「이거 들으면 뭘 배우는 거래?」

왼쪽 물음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아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은 답할 수 있는 물음입니다. 지난 1년에 겪은 것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어 두는 쪽」이란

이렇게	왜
이공 과목을 하나 남깁니다	안 들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학을 놓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계열에서 씁니다
한쪽으로 다 몰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안 들었다가 필요해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들었다가 안 쓰면 잃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두 위험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 면의 이야기 방법은 저희 상담 경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과목 선택은 학교 진로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가을의 차례와 점검표

시기	무엇을
9월	가정통신문을 봅니다 — 개설 과목 목록
9월	아이와 이야기합니다 — 위의 물음으로
10월 초	학교에 물어봅니다 — 시수·평가·개설 여부
10월 말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셋째 줄을 거르지 마십시오. 「이 과목은 주당 몇 시간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는 학교에 물으면 알려 주는 것입니다.

과목을 정하기 전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수강신청 일정 을 학교에 확인했는가
- ☐ 개설 과목 목록 을 봤는가
- ☐ 수능 유불리가 **기준이 아니라** 는 것을 아는가
- ☐ 선수 과목 을 들었는지 확인했는가
- ☐ 주당 시수와 평가 방식 을 물어봤는가
- ☐ 수강자가 적은 과목 인지 알고 고르는가
- ☐ 진로를 못 정했다면 **열어 두었는가**
- ☐ 아이가 **스스로** 골랐는가

여덟째가 3년을 갑니다. 부모님이 골라 준 과목을 3년 듣는 것과 스스로 고른 과목을 듣는 것은 세특에 적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과목 선택 상담이 **고1 가을에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 무엇이 개설되는지, 시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바깥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학교 진로 선생님께 먼저 여쭙보십시오. 값을 치르실 자리는 그다음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05 · 자주 묻는 것

과목 선택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어려운 과목을 고르면 등급이 나쁘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 고민입니다.

수강자가 적고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과목은 등급이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함께 보십시오.

하나, 학생부에는 등급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들었는지도 남고, 세특도 남습니다. 학종에서는 그것이 읽힙니다.

둘, 피해서 고른 과목이 유리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느 과목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리 모릅니다.

그러니 「등급 때문에 진로 과목을 피하는 것」은 확실한 손해를 피하려다 확실하지 않은 이득을 좇는 것일 수 있습니다.

Q.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없습니다.

먼저 수요조사에서 신청해 보십시오. 신청자가 모이면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열리면 공동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함께 여는 과목으로, 다른 학교에서 듣고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학교나 학교 밖 교육도 있습니다. 이런 경로로 들으면 학생부 비고 칸에 그렇게 적힙니다 — 오히려 찾아서 들었다는 기록이 됩니다.

다만 운영은 시도교육청과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께 여쭙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없다」로 끝내지 마시고 물어보십시오.

한 줄로 남기면

9월 가정통신문이 시작이고 10월 말 확인서가 마감입니다. 수능 유불리가 아니라 진로로 고르십시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개설·평가 방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